

# 설명자료

배포일시	2021. 5. 27.(목) 16:00 (총 4매)	보도시점	즉 시
담당부서	예보국 예보분석팀	담당자	팀장 김성묵
		전화번호	02-2181-0606

## 28일(금) 천둥·번개와 강한 비, 돌풍, 우박 유의

- 시간당 20~30mm의 강한 비와 강한 천둥·번개
- 전북·충청권 내륙, 강원영서남부, 경북권 최대 2cm 내외의 우박 가능성
- 해안과 내륙지방 시속 70km 이상의 돌풍 가능성 높아
  - 비닐하우스, 전신주 등 시설물과 과수 등 농작물 피해 주의



[ 5월 28일(금) 오후 기상상황 모식도 ]

- 기상청(청장 박광석)은 **28일(금)**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, 중부지방과 전북, 경북권에는 시간당 20~30mm의 강한 비와 함께 천둥·번개와 우박, 그리고 돌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,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당부와 함께 상세 기상전망을 발표하였다.

## [ 기압계 전망 ]

- 기상청은 중국 발해만 부근에서 남동진하는 저기압이 **28일 오전** 서해상, **낮에 중부지방**을 지나서 **저녁에는 동해상**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하였다.
  - 최근 한반도 상공으로 찬 공기가 주기적으로 지나가면서 우리나라 부근에 저기압과 비구름을 발달시켜 잦은 비가 내렸다고 설명하며,
  - 28일에도 우리나라 5km 상공으로 영하 20℃ 내외의 찬 공기를 가진 소용돌이가 남하하면서 저기압이 발달하고, 이 저기압이 남서쪽으로부터 많은 수증기를 머금은 따뜻한 공기를 유입시키면서 강한 비구름이 발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.

## [ 강수 전망 ]

- 중국 발해만 부근에서 우리나라로 남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**28일 새벽(00~06시)** 서해5도와 경기권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되어 **오전(09~12시)**에 중부지방과 전북까지, **낮(09~15시)**에 제주도를 제외한 남부지방 전체로 확대되겠다.

- (강수집중시간) 수도권은 출근시간대에 충청권과 전라권, 강원권은 낮 동안, 그리고 경상권은 오후에 가장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였다.
- 이후 수도권과 충남권은 28일 낮(15시)까지, 전라도와 충청북도, 강원영서, 경상권은 오후(18시)까지 비구름이 영향을 주겠고,
- 밤에 다시 비구름대가 발달하면서 수도권과 강원영서, 충청북부, 경북북부 내륙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, 강원영서와 충북북부는 모레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.

**< 예상 강수량 (28일) >**

- 중부지방, 전북, 경북권, 서해5도, 울릉도·독도: 20~60mm  
(강원영서, 충북북부 29일 새벽까지)
- 전남권, 경남권: 5~20mm

- (천둥번개·강한 비) 우리나라 5km 상공으로 영하 20℃ 내외의 찬 공기가 유입되어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지면서 중부지방과 전북, 경북권을 중심으로 강한 천둥·번개와 함께 우박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20~30mm의 강한 비가 짧게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.
- (우박) 특히 28일 오후(12~18시) 전북내륙, 충청권 내륙, 강원영서남부, 경북에는 최대 2cm 내외의 우박이 내릴 것으로 예상하며, 그 밖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1cm 내외의 우박이 내릴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,
- 비닐하우스와 전신주 등 시설물과 외부에 주차되어있는 차량, 그리고 과수 등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.

## [ 강풍 전망 ]

- 28일 새벽 서해5도를 시작으로 아침에는 경기 서해안과 충남권, 전북 서해안, 오전에는 충북과 전북내륙에서, 낮에는 경북내륙과 동해안에서도 시속 30~60km(초속 8~16m)의 바람과 함께, 순간적으로 시속 70km(초속 20m) 이상의 강한 돌풍이 불면서 강풍 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며, 최신의 기상정보를 적극적으로 참고할 것을 당부하였다.
- 강한 바람에 의해 야외에 설치된 선별진료소, 건설현장,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물 파손과 간판 등 낙하물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행자 안전과 시설물 점검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하였다.

## [ 풍랑 전망 ]

- 28일 새벽 서해중부 먼바다를 시작으로 아침~오전에는 서해상에, 낮~오후에는 남해상과 동해상에도 바람이 시속 35~60km(초속 10~16m)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.0~4.0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내려지겠고,
- 서해상과 남해상, 제주도 해상에는 가시거리가 짧은 가운데, 대부분 해상에 돌풍과 함께 천둥·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고 전하였다.
- 동해상에는 29일까지 물결이 높게 일겠고, 특히 대화퇴 등 원해상에서는 최고 5m 내외의 매우 높은 물결이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 중인 선박의 조심을 당부하는 한편,
- 모레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(대조기)으로 남해안과 서해안은 만조 시 해안가와 갯바위 안전사고(고립사고 등)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는 한편, 항공기와 해상 선박의 운항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이용객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.